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Dong Un Kang, Publis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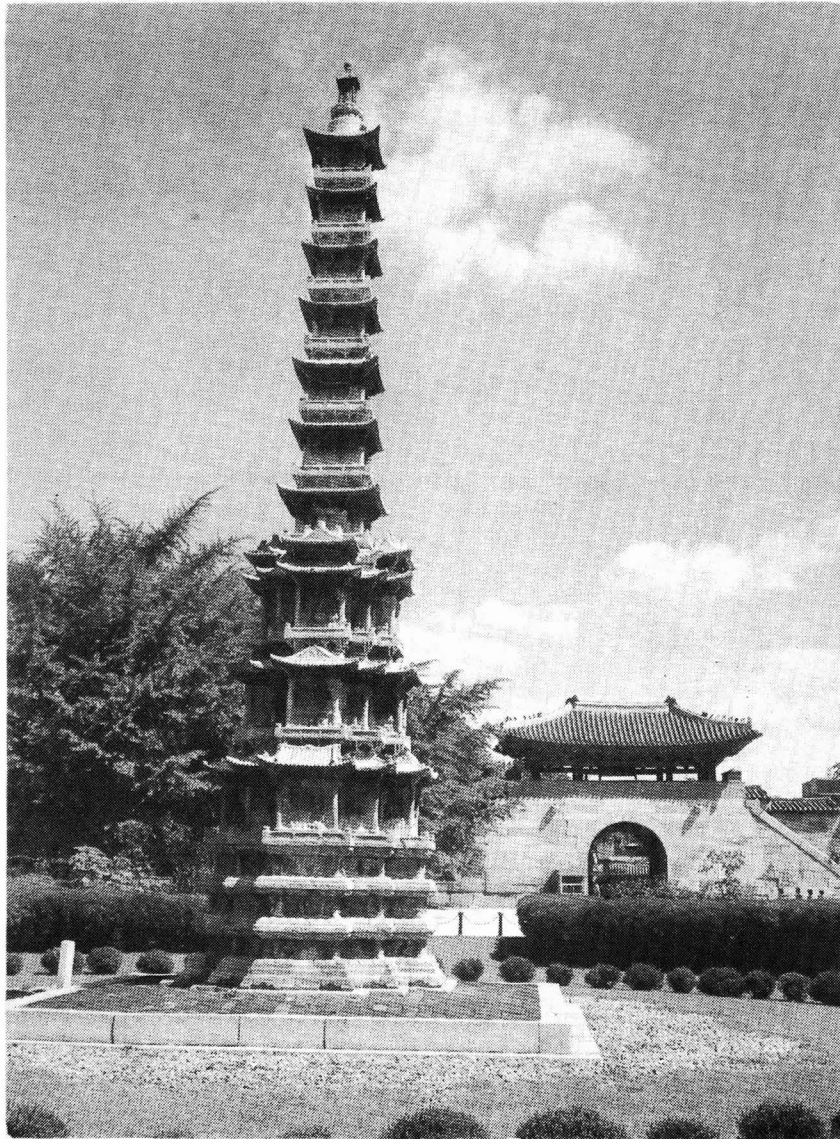
M. W. Moon, Editor

Phone: (206) 767-7934

Vol. 10, No. 2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FEBRUARY/MARCH 1981



구독신청 및 광고 문의는 (206) 767-7934

제 일 식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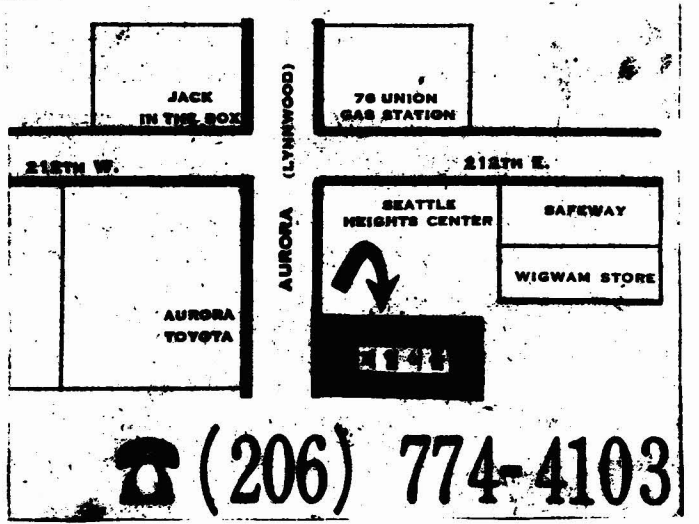
(THE FIRST ORIENTAL GROCERY STORE)

EVERETT, N. SEATTLE, HALLS LAKE, MOUNTLAKE TERRACE, EDMONDS 그리고 LYNNWOOD 에 거주하시는 교민 여러분!! 2월 26일 개업 이래 너무나 많은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로 서분을 맞이하여 힘차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으며 또 자라날 것입니다. 第一食品은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이 것입니다.

第一食品의 특징

1. 다양한 싱싱한 야채
<홍고추, 명주, 꽃배추, 샐러드, 배추, 무, 미나리, 콩나물, 가지 등>
2. 화장품과 비아민은 허브 지역보다 많고 인바.
3. Safeway와 자리를 같이하여 여러분의 사랑과 비호를 많이 전감하십시오.
4. 관공음양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영업시간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8시 30분
일 " 10시 ~ " 6시 30분



(206) 774-4103

5.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21405-A Hwy 99, Lynnwood, WA 98036

" 3.1절을 즈음하여 "

62년전 3월1일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정치하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만세로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겨한 슬기로운 단결심을 표본으로 하는 고향적인 기념일입니다.

더우기 이 외의 깊은 오늘 조국을 떠나 이국만리 먼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그 옛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 선조들의 뜨거운 피를 이어받은 우리들이란 점에서 더 한층 감격 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느나라의 민족보담도 우수하고 총명한 전통문화를 가진 민족 입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이조오백년동안 단결없이 무수한 당파싸움과 씨족간의 갈등 그리고 타인을 까닭 없이 시기하고 증상하며 비굴하게 아첨하는 풍조가 만연하였던 한때의 결과가 바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정책하에 서역음과 괴로움을 받게되었던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민 여러분 !
우리는 총명하고 슬기로우므로서 서로가 신뢰하고 인격을 존중하면서 단결하고 확고한 우리의 교민사회를 이루어 이곳에있는 여러나라 사람들의 모범이되고 그 터므로서 자랑되게 살아갑시다.

품은 비록 타국에서 온갖 장애와 괴로움을 겪지만 우리의 정신만은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문화민족으로의 긍지를 갖고 모든일에 대처해 나갑니다. 나아가서 이곳의 생활환경과 문명풍속의 지배하에 자라가는 우리귀중한 후세들이 자칫하면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민족정신과 아름다운 예의범절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올 바르게 선도 함으로서 먼 훗날 부끄러운 처지에 놓이지않는 우리가 되어야할것을 62주년 3.1절을 맞이하면서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끝으로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주신 교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씨애플-와싱톤주 교민사회에 보다 많은 발전과 축복이 깃들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1년 3월 1일

씨애플-와싱톤주 한인회 회장 강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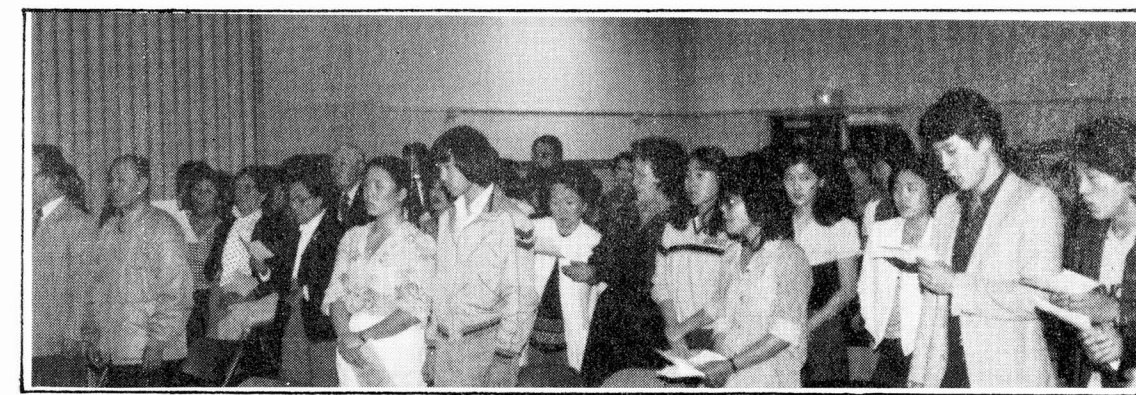
慶 祝



제 12대 집 두 환 대통령 취임

씨애틀-와싱턴주 학 인 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전화번호 : (206) 767-7934



"성황리에 치른 3.1절 기념행사"

제 62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를 한인회주최 지난 2월 28일(토) 오후 1시 Lake city Community Center 강당에서 고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기념식을 거행했으며 2부 순서로 영화 (여고 졸업반) 상영을 한바있지만, 고민여러분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차기 모든 행사에는 더욱 많은 우리한인들의 참여로 보다 알차고 보람된 모임이 되도록 적극 지원 해주시길 재삼부탁드리며, 또한 저희 한인회역시 계속 노력할것을 다짐해본다.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고 하듯이 우리 Seattle-Wa State 한인회는 한국인들의 간판

(얼굴) 격인 모임회로써 고민들의 참여도가 높으면 한인회역시 차원높은 단체기관이 됨은 사실이거늘 꿈 (미국내에 거주하는한) 까지 단합된 상징의합을 세우는데 무관심이 없어야 겠다. 갖가지 년중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전에 한인회보를 통해 제시하겠지만 고민들의 각 가정마다 남 너 노소 불문하고 최대한으로 참석하는 자리가 되고 저함은 주관하는 입장에서 의욕과 판단이 생기며 "발전성 있는 한인 사회단체"가 되리라 생각된다.



"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

우리는 지난 2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 South Boeing field 옆 Holiday inn 별실에 서 역사적인 한인회 주최 " 조찬기도회 " 를 갔었다. 씨애플-와신민주 한인회 창설 이택 처음 시도 하는 행사라서 모든 임원이 기대와 또한 걱정으로 행사를 시작했고 끝마쳤다. 역시노력의 댓가는 흐뭇한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참석 하신분들의 흐뭇한 표정에서 우리를 만족스럽게 했고 둘째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인원의 수보다 더 많은 (호응 있는) 분들의 참여로 하여금 예약된 좌석 때문에 당황하게 된 흐뭇한 일도 있었다. 셋째 참석하신 분들로 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

고 또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넉넉치 못한 우리 한인회 살림을 원망하면서 한편으론 보람을 느꼈다. 우리는 먼저 믿음과 사랑으로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인! 우리가 이렇게 뭉치고 단결한다면 우리의 한인사회도 머지않아 큰 힘을 발휘하는 단체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참석 하여 주신 여러분과 참석 치는 못했어도 이 행사를 위하여 엄려 해주 시고 성원을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인회 임원 임동



EAST-WEST TRAVEL SERVICE



IATA-ATC 공인

동 서 여행사

(206) 623-2157) 낮
623-2158) 낮
367-1935 밤

— 영업 안내 —

- * 국내 및 국제 항공권 판매
- * 국내외 관광안내
- * 항공권 일부판매 알선
- * 각종 여행수속 무료 서비스
- * 이민수속 및 가족초청 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시민권 취득 신청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공증업무 무료 서비스

※ 국내 및 국제 항공권 매입을 전화로 하시면 비행기표를 귀택으로 전해드리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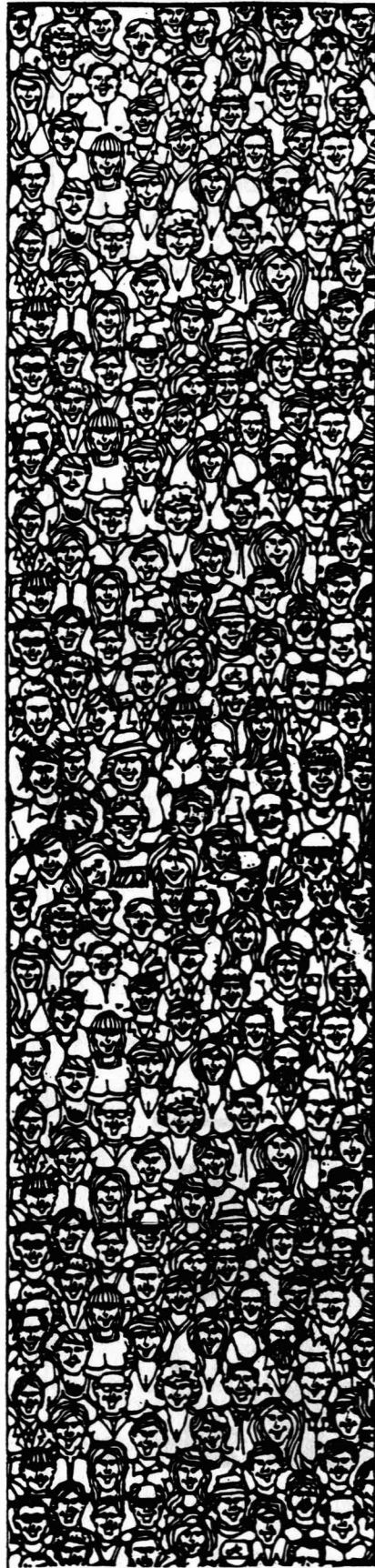
대표 이 영 호



KOREAN AIR LINES



NORTHWEST ORIENT



- ◎ CREDIT이 없으신 분도 가능합니다.
- ◎ 장기 월부판매(70년대 이자율)
- ◎ 어느 곳보다 가장 싼 가격
- ◎ 철저한 After Service
- ◎ 중고피아노 고가 트레이드 인



최고급품 플러&캠블 대리점 교포직영

LEE'S PIANO WORLD CO.
세계피아노사

(일요일 휴업 10am~7pm 평일영업시간 12pm~8pm (일요일 휴업))
시애틀 365-5540 타코마 582-8753
11325 Roosevelt Way N.E. 98125 이학보 8606 S. Tacoma Way 98499 이학유
(일시 전시장)

“조찬기도회”참석 후의 소감 은 한복

2.14일 개최되었던 조찬기도회!

나름대로의 성공적이었을 뿐 아니라 외국에 정착한 한민족사에 큰 의미를 지닌 모임이 아닌가 생각한다.

먼저 입추의 여지없이 만장을 이루은 것부터가 성공적이었다. 그 이유는 최초로 한인회가 시도한 역사적인 이모임에 그리한가 하지않은 많은 인사가 만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첫째로 많은 가능성을 가진 한인회를 신뢰 했다는 증거요, 둘째로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대다수가 조국을 위한일을 위시해서 어떤 보람있는 일을 함께 해보겠다는 의욕의 과시라고 생각되서이다.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된 조찬기도회는 언젠가 가슴몽클하게 했던 "한국 가곡의 밤"에 의 가슴뜨거움을 가지고 손서순서 마다 절실한 공감을 가지게했다. 여러 목사님들의 조국의 오늘과 내일그리고 미국과 이곳에 영주하는 한인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바로우리들 전부의 바람이요 염원 이기에 더욱뜨거운 공감을 가지게 했다.

뿐만아니라 불신과 본업로 오태고질병에 피해를 입으며 시달려온 민족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해준 "확해의 복음"이라는 설교는 가장적절한 말씀이라고 느껴졌다.

또한 한인사회의 장기적이고도 눈부신 발전의 요인은 얼마든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먼

저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조찬기도회를 가졌다는 점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치하 해야할 일이 아닐수 없다.

이번 행사는 외력적인 요식행위를 넘어찬란한 한인사회의 무지개를 향한 창조적이며 보다의욕적이고 종교적이라는데 더욱 큰 이모임에 의의를 두고싶다. 그러나 좀 유감스러운점은 좀더 많은 인사들을 참석시키지 못한점이라고 할수있다. 계층사회를 초월하고 서로 불신의 벽을 깨고 너없는 내가있을수 없고 나없는 너의존재 의미가 있을수 없다는 사회학적 관계속에서 피차협력하여 찬란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여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겨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뜻있는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끌 계한 한인회에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하나님께 빌며 충심으로 한인회임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1981년 2월 14일

한인회 주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전화번호 : (206) 767-7934

나 혼자 잘 나기를

바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 로시푸조의말 —



범국민성을 과시 할수 있는 계기

봉사 임 필수

정말로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과 인간
의 올바른 관계는 괴로움을 같이하는 데서 오
는 이해」인것 같습니다.

고로, 선외의 비판과 충고 그리고 방안을 제
시하는 대화의 광장이 바로 우리고민들의
한인회여야겠습니다.

결코 이제라도 늦지않았다고 생각 됩니다.
좀더 성실하게 생을 살기위해서 즉 우리가
이만사에 혼적을 남기기위해선 한인회를 주
국 육성하는 것만이 시급한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보충하자면 한인회에서 과연
고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언가 기대
하기에 앞서 우리고민자신들이 한인회를 위
해서 아주 작은것일지라도 무언가해야되겠
다는 마음자세가 확립된다면 바약적인 발전
은 물론 그토인하여 값진복은 고민들앞으
로 주어진다는 엄연한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르기를
(반성한다는것은 새로운 생활의첫걸음)이
라고 하였거늘 어쩌우리가 과성하여 보람됨
을 얻고저하는데 소홀됨이나 안이함이 있어
야 되겠습니까. 무언가 정말 우리가 반
성하는 가운데 단합된 마음과 눈에는 발전
을 추구하자면 크나큰 영광의함을 필연코 향
성하게되고 고국의 동포와 후세는 물론 외국
인들에게도 모범이되는 범국민성을 과시하
게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난과오나 부끄러움을 고통삼아 역비택현

상을 초래할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있거늘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더이상 지체함이 어
리석거늘 지금이바로 시작이란 통동한 판단
하에 보다힘에힘을 합한다면 이곳 고포들의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되어 미국내로부터 전
세계에 전해져 한국민의 단합성과 발전상을
진정본받을수 있도록 해야될것 같습니다.
간단하나마 간곡히 부탁드리는 소신이 여기
있습니다.

1981년 2월 16일

한인회 이사회 개최

3월 14일 (토) 오후 2시-5시까지 한인
회 회의실에서 1981년도 한인회 집행부의 년
간 사업계획안과 이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한
바 사업계획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만장
일치로 통과 되었다.

한인회 체육부장에 윤길용씨

금번 한인회의 체육담당임원 결원으로 많
은 고심을 하던바(U.W)대학교 항공학과
재학중인 윤길용씨가 체육부분에 봉사하게
되었음.

씨애틀-한인회회장 강동언씨는 기능사협회
가 주최한 거북선의 밤 행사에 참여하였고 이
날 기능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태극기를 기증
하였다.

- \$ 재정 소식 \$ -

" 81년도 회비 납부자 "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고봉식 \$ 15:00	최영세 \$ 20:00	지장한 \$ 20:00
신세훈 \$ 15:00	박은남 \$ 20:00	백세현 \$ 15:00
이형만 \$ 15:00	유인섭 \$ 15:00	김정택 \$ 15:00
유백운 \$ 20:00	윤길용 \$ 15:00	장부관 \$ 20:00
이정길 \$ 20:00	최창일 \$ 25:00	김대진 \$ 15:00
전계상 \$ 20:00	황의택 \$ 15:00	

건축기금

김정택 \$ 20:00

한글학교 기금

영사관 \$ 200:00

조찬기도회찬조금

폴신 \$ 200:00

지장한 \$ 100:00

조성욱 \$ 50:00

서광선 \$ 20:00

김정부 \$ 20:00

엄명보 \$ 20:00

이기탁 \$ 20:00

동서여행사 \$ 50:00

삼일절행사찬조금

김정부 \$ 200:00

박홍순 \$ 50:00

지장한 \$ 30:00

한인회 발전을 위해 회비를 납부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인회비는
1년에 1회이며 개인당 \$ 10 이고 가족은 \$ 15 입니다.

한인회 주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전화번호 : (206) 767-7934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우리 똑같이 합심하여
한인회관을 건립합시다***

새눈과 땅벌레의 눈

박 건 홍

하늘에 높이 떠서 땅을 내려다 보는 새의 시야는 넓고 요연하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나 세계의 움직임을 터득 하는데 있어서 이처럼 새와 같은 눈을 지닌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시야가 넓은 사람들이라고 높이 본다. 이에 비하면 땅벌레의 시각은 비좁고 답답하다. 땅바닥에 붙어 하루 종일 이쪽 저쪽 아택 위를 다 돌으며 기어다녀 본 것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 넘어에 무엇이 있는지 애써 가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새 처럼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골고루 이해할 수 없기에 땅벌레들은 숙명적으로 세상을 모두 평면적으로밖에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시야가 비좁은 자들이라고 낮추어보기 일수다.

이곳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특히 이 넓은 미 대륙에서 숨쉬고 있는 한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스스로 새와 같은 눈을 가졌다고 자처한다. 그들은 현실을 고차원적으로 넓게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어깨를 치켜 올린다. 하기가 과학기술의 첨단을 견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의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이 "영광된 나라"에 와서 좀 살고 나서 이것 저것 다소 알게 될 때 눈이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고차원적 세계관을 갖은 새눈의 사람들 앞에서 땅벌레의 비좁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힘을 잃는다. 시야가 좁은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거창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원적 논법이 설파될 때 그들은 그저 입을 닫고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요즈음 우리 주변 여기저기서 우리와 연관되는 현실 문제를 놓고 웅으니 그르니 입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다. 골잡 민주주의다 독재주의다 하며 얼뎠을 토하는 그런 아귀다툼들을, 그런 장면들을 구경하고 났을 때마다 나는 마치 활극무대의 막이 내린 후 승자와 패자를 다시 한번 가름해보듯 그 주인공들의 마음을 더듬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들의 싸움은 어딘지 때때로 어렴풋시 유추해보는 새와 땅벌레사이의 시각전쟁 그리고 그것에 내재하는 필연적인 아이러니 같이 느껴지기만 한다.

본명히 우리에게 새눈과 같은 광안이 필요하다. 내가지금 어떻게 생긴 집에서 살고 있는지, 세모꼴인지, 네모꼴인지, 내집안에 비밀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옆 저 넘어에 얼마나 높은 산인지 조감적 시야가 없이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나를 알려면 내가 살고 있는 틀의 모양을 알아야 하고 또한 이와 이어지는 연관구조의 형상도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눈에는 커다란 맹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눈은 비록 멀리

DO YOU NEED A LAWYER?

6인 합동 법률 사무소

전문 변호사 안내

로날드 G. 브라운
차 · 護 · 士

ESTEP & LI
ATTORNEYS AT LAW
2110 Exchange Building
2nd and Marion
Seattle, WA 98104

Office: 682-0565
Home: 821-4465
통역

전체를 볼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에서 아택을 내려다 본 걸 모양이 전부이다. 새눈을 가지고는 시야에 잡힌 한 마을의 수많은 집들 그 하나 하나의 속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 ^{그속에 죽어 있는지 밤이 풀는지?} 집이 세파으로 갈라져 있는지 ^{잔치} 네쪽으로 나뉘어 저 있는지? 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어서 슬피들 울고 있는지

땅벌레들은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세밀히 알고 있다. 그 마을은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생활영역이며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밀착된 세계이다. 그곳은 또한 땅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동운명체적 질서의 장이고 그들의 애환과 희열이 담겨져 있는 정서의 공간이다. 땅벌레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 곳에서 자유롭게 이합할 수 없는 숙명적인 연대.

성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어디를 가봐도 땅벌레 같은 안목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회의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한다. 아무리 개명되었고 발전된 사회라 할지라도 그곳 나름대로의 토착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그속에 웅성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온갖 불행과 고통을 몰아다 주는 땅이라 하더라도 흙 냄새를 몸에 풍기며 평면적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은 때때로 이런 평면적 시각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다. 그 발버둥의 모습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승화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이탈의 형태라고나 할까,} 자기승회의 형태란 자유와 속박이 공존하는 형태이다. 어떤 땅벌레는 과감히 벽을

기어 올라 지붕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의 제일 높은곳까지 올라가 아락을 내려다 보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시각을 얻고 공중으로 비상하는 놀라운 향상을 성취할수도 있다.

그러나 평면적 시각을 초월하여 높은곳에 이른 이 땅벌레들은 날개가 있던었던 다시그들이 나왔던 땅으로 향하려는 본능적 속박을 끊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은 그 높은곳에서 조망한 시각을 그들 마을의 이상화를 위하여 승화시키고 노력한다.

반면 자기 이빨형이란 자유만을 택하는 형태이다. 이에 속하는 땅벌레는 공중에 높이 뻗을때 갑자기 새로 변신하는 자신을 느낀다. 아무곳에나 훨훨 날라갈수있는 무한한 자유를 얻은 새처럼, 점점 높이 올라서 자기 마을과 옆마을, 또 그 옆 그리고 온 세상을 한눈에 볼수있을때 그 날개달린 벌레는 의식속에서 이미 안수할 땅을 잃어버린 불회귀의 후조가 되어 버린다.

오늘 여기에 사는 우리중 많은 사람들은 다소간 것처럼 "돌아가지 못하는 철새"의 서글픔을 앓고있다. 그런 서글픔이 때로는 떠나온 마을이 당하고있는 역경과 고통에 대한 분노를 몰고오게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땅벌레의 향수와 새의 자유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번민해 사로잡히곤한다. 이런 갈등속에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가 숨어있다.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삶이 가져다주는 어쩔수없는 아이러니 일지도 모른다.

아이러이는 웃음을 자아내는데 속성이

있다. 인간이 가지고있는 이상과 현실사이에는 매꿀수 없는 것어기에 이상만 가지고 현실을 파악하려드는 사람이나 현실을 움켜잡고 이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모두 때때로 웃음거리가 될수있다. 그러나 우리가 쓴 웃음이나마 웃을수 있게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을때에만 가능하다. 그런의미에서 아이러이는 인간이 과오를 범하고도 구제 받을수있는 희망을 내포하고있다. 사실상 아이러이는 인간의 생활가운데 늘 있을수있는 일이며 시간의 흐름속에 항상 반복되고 있다. 역사의 변천은 아이러이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인간의 이런 아이러이를 보고도 웃어줄수있는 여유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나 행위가 아이러이의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확석화 되어 버리면 웃음이 끊어진다. 그것은 비극이기 때문이다 비극의 속성은 단절에 있다. 자기가 갖고있는 세계관이 고정불변이라고 필사적으로 고집할때 단절의 역사는 시작한다. 독재를 구가 하는 사람이나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이념을 이상화 할때 단절의 벽이서고 그 사이에서 비극이 싹튼다.

비극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웃을수가 없다. 또한 인간이 비극을 만들고 있을때 신도 웃음마저 잃어버리게 될것이다.

필자 : 와싱턴 대학 정치학과

"뉴 라이프"지 4월호 에서 전제

가르치고 기르고 이끌어 줌시다 백 세 현

1. 교육 (教育 EDUCATION)

인간은 나면서부터 (育)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教) 도움을 받아 가면서 자라게 된다.

육 (育, 기르다)이란 한자어를 살펴보면 여인의 자궁에서 아기가 나오는 형상을 뜻하며, 교 (教, 가르치다)란 글자는 어린 아이를 손으로 쓰다듬어주는 모습에서 만들어 낸 글자라고 들고있다.

아담과 이브 (Adam & Eve)로 부터 현대 인류에 이르는 기나긴 인류 여정 (Journey) 가운데 기르고 가르치는 일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이것없이는 인간의 문화 (Culture)와 문명 (Civilization)은 축적 내지는 발전이 있을수 없는 것이다. 교육 (EDUCATION)이라는 서양말에 어원을 살펴보면 EDUCARE (에듀카아레)라는 LATIN (라틴) 말에서 찾아볼수있는데 그 뜻도 한자어와 비슷한 "이끌어내다, 이끌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많은 교육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교육이라고 보는 점에 그리본 의견차이는 없는것 같다.

2. 교육과 사회

두사람 이상이 모인것을 우리는 사회라한다. 그리고 보면 결혼한 부부는 가장 작은 모습의 사회라고 볼수있겠다.

그 속에도 외당히 교육은 있다. 남편은 아

시 鐘이 존재하는 삶의意味

백용기

종은 피울음을 토하기도하며
종은 환희의 눈물을 흘리기도하며
종은 종택 울리지 않기도한다.
듣는이는 그 울림대로 삶을보낸다.
듣는이는 그 울림대로 희비를 맞본다.
듣는이는 그 울림대로 지쳐 버린다.
그 어운은 때로는 길고
그 어운은 때론 짧다.
만들어진 형체에따라 울림도 다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함은
종을 치는이의 마음이다.
종을 치는이의 자세이다.
종을 치는이의 깊은 양심이다.
허나 종을 치는이들아!
아주 많고 손결한 마음으로 쳐다오.
종을 치는이들아!
그리고 우렁차게 곳곳마다 시원하게 쳐다오
종을 치는이들아!
정직하게 쳐다오.
그 울음이 진실을 포함때까지.
그 울음대로 살도록까지.
영원히 영원히 깊고 넓게 울려다오.

내를 계속 가르쳐 나가야 하며 아내는 부단히 남편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자나가 태어나면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게 얽혀 가기 마련이고 부모의 조력에도 한계점이 들어나 부모 아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된다.

즉 선생님 (스승, 교사) 과 학교 (교육기관) 와 교과서와 교육시설 및 교육방법등등 기하급수적인 요구 사항들이 문제화 되므로 교육전문기관에 맡겨 이를 다스려 나가게 위임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기본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내용들은 가정에서 이뤄져 나가고 있으므로 부모는 자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르고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학교에서는 협동, 애국, 공중도덕 등을 배우고 인간사회에 필요한 문화 및 문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학, 수학등을 배우고 때로는 직업훈련을 쌓는다. 그러나 인간의 가슴과 가슴속을 연결하는 애정과 사랑과 인류애의 애뜻한 뜨거운 눈물이며 이해관계를 떠난 희생정신 등은 가정에서 부모 이외에는 누구도 대신 할수 없는 아주 귀중한 교육 내용 들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선생님 학교시설 학교의 교육내용도 무척 중요한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모라는 선생님은 자라나는 피 교육자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 받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3. 미국에서의 자녀교육 문제

위에서말한 학교, 선생님, 학교시설, 학교교육의 내용은 영국, 불란서, 미국등 서양대국들은 매우 뛰어난 수준에 있다.

따라서 매우 우수한 교육환경 (학교교육) 속에 일단은 우리 자녀들이 들어와 있음에 흐뭇하고 감사한다. 그러므로 이곳 미국에 이민은 이유중에 하나를 자녀교육 때문이라는 이유는 잘 태 변명임에 불림없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회의에 빠져 있는

실정을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때문일까? 차라리 한국으로 되돌아가야만 자녀들이 제대로 사람이 될것 같다고 한탄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하겠는가?

아니면 무관심해져서 교육의 책임을 완전히 학교와 사회에 내동댕이 친채 남아준 이유 이외엔, 최소한의 의, 식, 주 공급 이외엔 책임을 집 필요가없다고 아주 부모의 책임을 포기한 동포들의 서글픈 심정은 무엇으로 위로 받을수 있을까?

4. 미국 사회의 이해

우리세대 (Generation) 가 자라난 동양의 한국적인 상황은 제약과 억압 내지는 선택의 권리를 뒷사람들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골짜기만 가던 세대임을 고백치 않을수 없다.

그러한 상황속에선 별로 방황할 필요도 없고 시간낭비 고민등이 때로는 감소될수 있었다. 음으로 양으로 혹은 자의반 타의반 (自意半 他意半) 으로 그냥 수용내지는 감수 하면서 우리의 인격은 굳어져 왔고 그상대 그대 토가 올은것으로 인정해 오던중 이곳으로 갑자기 옮겨진것이다. 이곳 서양의 사회 환경은 동양과는 많은 면에서 현기증 날 정도로 (우리 세대에게는) 차이가 들어나고 있다. 확트인 대자연속에 무한한 자유와 책임 및 자기에게 주어진 무한한 선택과 가능성등 우리세대의 교육환경과는 도무지 이어지지 않는 평행선적인 사실들이 너무도 많다.

따라서 우리세대 (이민 1세) 가 먼저 미국

산부인과 전문의

로 명재 M.D. (ROE, MYONG J.)

Diplomate, American Board of
Obstetrics - Gynecology

Fellow,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Gynecologists

일반산부인과 · 불임증 전문

※ 임신중절은 하지 않습니다.

월 화 금요일

201 N. DIVISION ST
AUBURN, WA 98002
< 833 - 2580 >

Appointment에
외해서만
보실수 있습니다

9.30 A.M.
5.30 P.M.

수요일 토요일

1711 324th Pl.
Federal Way, WA. 98003
< 927 - 8440 >

사회를 이해하기에 힘써야 하겠다.

즉 우리가 먼저 좋은 스승이 된후에야 자녀를 잡기르는 부모가 될수 있겠다는 이론이다.

" 밥 못가는 소, 쟁기 나무타기 " 라는 속담이 귀에 쟁쟁해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학교에서는 계획해서 무슨편지인지 인쇄물이 자꾸 날타오는데 무관심하게 내버리도록 내버려 둔다는 사실이며 P.T.A 회의 가 있다.

무슨 Party 가 몇시에 어디에서 있으니 협조해 주시겠느냐? 무슨방법으로 학교에 협조하실수 있겠느냐? 동 민주적인 방법으로 갖가지 편지나 통지가 자녀들에 위해서 집에 전달되는데 집에서 학교로가는 답장은 거의 없는, 행편이며 자녀들의 자라남은 세월따라 알수있으나 그들의 머리속에는 무엇으로 알았이 장식되어 지는지는 알아볼 길이 없이 희미한

대화의 벽은 나남이 짙어지면 간다.

5. 부모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가장위대한 스승인 부모가 제구심을 못하면 어떻게될까? 자녀는 엉뚱한 방향으로 치달리게되고, 부모의 위치는 형편없는 사환의 위치로 전락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부모는 미국 사회를 잘이해하고 말을 모르면 늦더라도 A.B.C. 부터 배워야하며 남모르는 노력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인 쓰기, 읽기, 말하기 등을 힘껏 배워야합니다. 노력없이 수확을 기대하는것은 정신이상자가 아니면 도적입니다.

십은 대로 공들어 기른대로 거둔다는것을 알고 있을 진대는 우리도 행동하여 훌륭한 스승의 기본을 쌓아봅시다.

그후에야 자녀교육을 논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까? 어느나라에서 이민을 왔는지 그들이 겪는 자녀교육의 문제점은 유사합니다. 우리만이 겪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스승의 위치를 회복하는 날, 그 자녀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자녀로서 자라날 것이며 이사회에 보람 있는 행동을 보여 줄 것입니다. 교육은 빨리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인내와 애정으로 땀과 눈물, 때로는 피를 요구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자람에 대한 기원을 그들이 잠든 고요한 머리맡에서 위대한 신 (God)께 기도드려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필자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전 신임 중, 고교 교사
전 샌프란시스코 고려한의원 원장
현 Western Electric Co. 근무

공수병 지회

지난날, 푸른 항공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던 하늘에 백장미들을 찾습니다. 장교, 하사관, 사병을 막론하고 워싱턴주에 거주하시는 공수병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또한 공수병을 알고 계신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씨 애 틀 : 365-0468
743-7839
마 코 마 : 572-6658

★ 각계 위 동 향 ★

거 복 선 의 밤

지난 2월 14일 (토) 6시에 보일락 메이커 유니온 홀에서 기능사회원 200여명과 기능사회에서 초청한 경노회 노인들 50여명을 모신 가운데 기능사협회 주최 거복선의 밤이 개최되었다.

1부는 식순이었고 2부는 여흥시간이었는데 이날 1부식순에는 강동연 한인회 회장, 안중구 영사 그리고 보일락 메이커 유니온 비지니스 매니저가 초청인사로 등장하여 기능사회원에 인사를 했고 2부에서는 이지영 (9세) 양의 고전무용으로 경노회 노인들의 흥을 돋구었다. 그리고 기능사협회 임원들의 소개가 있었는데 임직원들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고광운 부회장 : 이기만, 김학용
- 총무 : 황외택 재무 : 이덕기
- 봉사 : 신창호 편집 : 손학우, 윤운복
- 섭의 : 김진홍

조기축구회 박측

2월 14일 Delridge Way S.W. Seattle 에있는 야외공설 운동장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끼리 모임을 갖고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서로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키위해 이모임을 갖겠다 한다
더우기 유월상씨의 말씀은 건강을위해 축구를 하고저 하시는 교민께서는 아무런 부담감없이 참여하여주시기 바라고 있으며 현재회원은 약 25명이 참여하고있다고 한다.

고독한 인생

안 정 무

언젠가 같은직장에 젊은친구가 주말에 도박장에 가서 즐겼다는데 한국사람이 참많더라고 이야기를 하는것을 들은적있다. 아마도 주말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함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인데, 고독이란 홀로있어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이다. 그러기에 우리주위에는 자식과 부모 형제 친척 친구가 고독을 해소하기위해 끊임없이 대상을 찾고 그것에서 마음을 서로 위로 받는것임에 틀림없다. 누구나 아무것도 없는빈방에서 하루종일 담뱃만바라보고 있을수있는 사람은 없기때문이다. 어쩌면 하나님도 무척고독한 양반인것같다. 궁허한 곳에서 외롭게 있을수가 없던모양인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주흡족하게 고독을 푸셨고 또한 후회도 하셨다. 그리고 보면 고독은 창조를 낳게되고 파괴도 갖어 올수있는 원인이 되는것같다. 어떤 철인은 나는고독하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다고했다. 정말로 잘 이해한 말같이 들린다. 하나님의 아들인예수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처소가 있거늘 인자가 머리 돌곳이 없구나하고 고독함을 나타내셨다. 아마 그때서 쉬지않고 기도하라고도 하신것도같다. 그러면 어떻게하면은 인생을 고독하지않게 살아가는가가 문제이다. 그것은 환경과 성격및, 재능, 재력 학력에 따라서 다를수있고 또는 생각하는 척도에 따라서

달라도진다. 건설적일수도 있고 파괴적일수도있다. 그중에서 우리는 어떤것을 시시각각으로 선택하며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다른업매를 맺을수 있게된다. 대부분이 서로만나면 지식과 재물에는 엉터리고 약은것같고 속지않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과거의 주어진 시간을 잘다스려 나가는데는 꼭 약지 못한것같다. 바람에 날아가는돈은 겸사적으로 잡을려고해도 한번흔들려가면 주어지지 않는 시간을 소홀히 생각하게 됨은 원인이일까? 과거주어진 귀중한시간속에서 우리는 어디에다 어떻게 씨를 뿌려가고 있는것인지! 인생을 허무하게 흘려 보내고 허영계 번져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졌을때 후회하게 됨은 어떤일일까? 인생의 나무잎이 하나둘씩 떨어져 가기전에 조심스럽게 고독을 생각해 보는것도 우리인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것 같이 느껴진다.

1981년 3월

4월 永住權문호, 1·2·3·4순위 오픈

4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다. 국무성이 발표한 영주권 문호는 5순위만 일주일 앞당겨 졌으며 다른 순위는 전달과 변동이 없다. 5순위는 프라이어티메이트가 78년8월22일이며 6순위는 80년5월1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1,2,3,4순위는 오픈.	▲제1순위(시민의 미혼자녀)-오픈 ▲제2순위(영주권자의 미혼자녀및 배우자)-오픈 ▲제3순위(전문가)-오픈 ▲제4순위(시민의 기혼자녀)-오픈 ▲제5순위(시민의 형제자매)-78년8월22일 ▲제6순위(취업)-80년5월1일
---	---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전화번호 : (206) 767-7934

와싱턴주 해병동지회 에서 알림

" 청룡의 밤을 맞이하면서 고민께 드립니다 "

금번 저희 와싱턴주 해병동지회에서는 대한 민국 해병대 창설 제 33주년을 맞이하여 고민여
본과 같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청룡의 밤을 개최하오니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서 지
회들의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여러분들을 위하여 좋은 상품을 준비 하였습니다.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품 추첨

- 1등 : SONY 비디오 SL 5400 에이스TV 사 (대표 : 노광훈)
- 2등 : 한국 왕복 비행기표 한국 여행사 (대표 : 홍석기 , 이주용)
- 3등 : 냉장고 이규영 계리사 사무실 김철준 보험

노백 자랑

- 1등 : 19인치 흑백 텔레비전, 중앙식품 (대표 : 김학순)
- 2등 : 17인치 흑백 텔레비전, 현대식품 (대표 : 조진기)
- 3등 : 13인치 흑백 텔레비전, 그랜텍트릭 (대표 : 안세록)

누구 에게나 행운은 있을 것입니다.

입시 : 1981년 4월 11일 토요일 오후 5:30

KINGSTON VILLAGE KIMBERLY HALL

장소 : 1313 S.W 104th Seattle, WA 98146

입장료는 부부 \$15,00

1인 \$8,00

현장판매 \$10,00

예매는 과 한인업소이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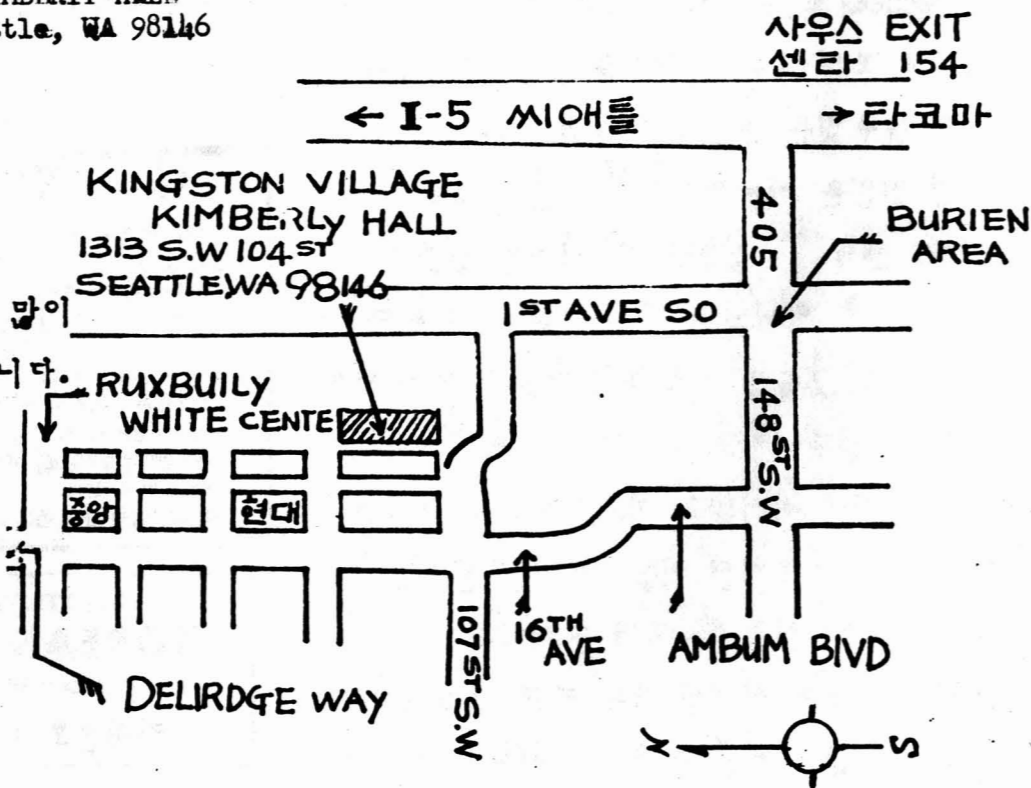
회장 김두영

회장 김두영

연락처 : 937-3604 05

해병 동지회 사무실

약도



김철준 NEW YORK LIFE 보험



SEATTLE 사무실 : 546-6586

집 : 367-1534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21 SEATTLE-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363-3704

We guarantee tomorrow today.



..... 토막소식

안중구 영사 전보 발령

3월 31일부로 과메말라 대사관 참사관으
로 승진 전보 발령되었다. 안 영사는 약 2
년전 이곳에 부임한이때 경제 및 고포 관계
업무를 담당해 왔고 후임으로는 외무부 정
보 문화국 제 2 과장 박부 열 씨가 이달 하
순경 이곳에 부임할 예정이다.

안성진 목사 은퇴예배

오는 4월 26일 (일) 오후 4시 한인
연합 장로교회에서 금년 65세를 맞이하
는 안성진 목사를 위한 은퇴예배가 있으
며 앞으로 남은 여생을 기독교 아동문학
방면에 헌신 하신다고 한다.

조기 축구회의 발전을 듣고 한인회 회장 및 몇
사람의 임원이 3월 8일 조기축구회를 방문
하여 이들의 모임에 격려와 그리고 발전을 위
해 축구공을 기증하였다.

우리 고민을 위한 행사때마다 꼭 필요한
마이크와 스피커가 없어 고민을 하던바
이번 3. 7절 행사를 위해 금바스 클럽
대표 정동수 씨가 자진 협조를 하여주셨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부 김용세

어느날 이 있습니다.
 미국 생활 4년만에 처음으로 장택석에 참여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손서가 끝
 나고 허관식이 있을때 모두 자리를 피하던중
 나는 저-멀리에 있는 큰 비석 하나를 발견
 했고 또 그 비석에 주인공이 공금하여 그곳
 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고 케네디 대통령의 비석이었고 그림에 이
 림글이 쓰여있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하여줄까를 생각하기전에 내가 먼저
 국가에 무엇을 할것인가를 생각하라).
 나는 애타의 케네디 대통령을 연상하며 시선
 과 발이 잠시 머물러 있었을니다. 그리고 마
 음속에서 동오되어 오르는 무엇인가가 긍정하
 는 고개를 끄덕이게 했고 발길을 되돌렸습니
 다. 돌아오는 차속에서 자문자답해 보았을
 니다. 인간은 백어나면 언제간 죽어야하고
 죽어야 하는가? 우린 지금도 죽음을 향
 해 다음질치고 있건만 왜, 우린 그동안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며 살아야 하는가?
 또한 같은 민족끼리 한동포끼리 낯서고 물서
 고 언어와 풍습과 민족마저 새다는 이국땅에
 서 나무위에 울려놓고 밑에서 혼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 수십 생애에 회토 애환을
 관측하다가 한물코의 부도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의지없는 나그네의 마음
 만이 한었다) 탄금귀가 더욱 새삼스럽게
 뇌까려집니다. 내가 존재하기에 당신이 존

재하고 당신과 내가있기에 그사람이 있고
 나와 너와 그사람은 하나의 모임을 형성
 합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는 모임, 당
 신이 모른체하는 모임, 그사람이 불신임 하
 는 모임, 감정과 고집과 불평은 하나의 모
 임을 파산시킵니다. 나는 이렇게 응용해
 서 다시 뇌까려 보고싶습니다.

(한인회가 내게 무엇을 도와 줄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인회에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것인가를 또는 내가 지금 참
 여하고 있는가들) 발전을 위한 불
 평과 반대,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와 불
 평, 같은 불평과 반대이지만 그 차이는 너무
 도 멀고 긴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에 서있습니까? 또한 어디로 가고 있습니
 까? 나하나의 참여와 나하나의 협조로써
 한인사회가 발전한다면 잠시 생각해 보
 세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
 이며 우리는 미국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백어나고 미국 말을 잘하고 모
 든 생활을 미국에서 미국식으로 한다고 해
 도, 자신은 미국 사람과 같다고 생각을 해도
 한사회가 우리를 미국 사람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동등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다. 다만 미국 사람과 같이 보이려고 위
 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고 봄
 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
 다. (우리는 미국 사람이 될수도 없고 되
 어 질수도 없다) 우리는 역시 로메리칸
 (로리안 아메리칸) 입수 밖에는 될수 없
 다고 심포했습니다. 1 - 31 - 87

찾습니다

공군을 제대하신 장 사병을 찾습니다.
 씨야를이나 근고에 거주하시며 공군을
 제대하신고 민께서는 아택 전화로 연락
 을 바랍니다.

전화 : (206) 542-1849

(206) 775-4785

" 오후 5 시 이후에 전화 요함 "

따사한 봄을 맞이하여 " 서라벌 동문회 " 를
 발기코져 3 월 28 일 (토) 임시모임을 갖길
 예정이오니 동문 여러분외 적극적인 참여와
 우애를 기대하며 많은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 한인회 (767 - 7934) 혹은 중앙
 식품 (762 - 5620) 으로 해주십시오

알림

한글 학교 신학기 개교 예정
 . 오는 4 월중순에 한글학교를 개교할 예정
 입니다.

한글학교 입학생은 국 민학교 학생과 중학
 고 학생으로서 한글을 배우고 기초언어를 배
 울수있도록 합니다.

많은 학생이 있고 수강토록 합니다.
 학부포 되시는 고 민여러분께서는 이력사항을
 한인회에 등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 소. 학생이름 . 학급. 연령
 학부포 성명 . 전화번호.

한인회 교육부

시

연필 수

소녀여!
 내그대 있었다 슬피하지 말아주오
 내 어이 소녀를 잊을수 있겠소
 생활에 쫓기다보며 때론 그대 마저있으오
 아니, 결코 잊지 않으리다
 전하는 내마음 없다고 섭섭하 하지마오.

소녀여 -

또한 내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해서

슬픔 입양 갖지마오

온 세상이 모두 변한다해도

내 마음 슬픔 더욱 없다오

소녀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기원하는 나에게
 어찌 행복이 따르리오

소녀여 자랑스런 나의 소녀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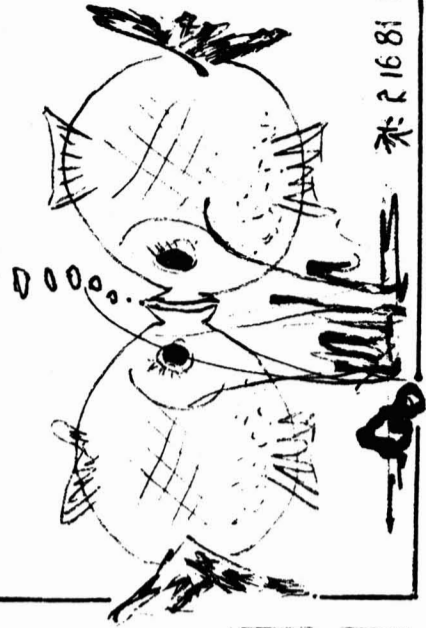
영원히 그대를 잊지않으리다

바위가 부서져 모래가되고

백양에 바다가 마를지언정

내 마음 변함더욱 없다오!!

《*소녀를 고국(조국) 으로 바꾸어
 느끼시자면 잘못이 틀리지오!》



중공 관광 여행의 기회

과거 철의 장막의 나라 중공을 실지 견문할 수 있는 관광에 의한 교육 여행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로 중공을 방문하고 오신분들의 이야기나 글을 통하여 대략 어떻게 하는 점을 들어 알고는 있지만 실지 몸소 느낄수 있는 기회가 일반인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미국 관광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여행계획은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하여 준비되고 있으며 원만한 여행을 할수 있도록 중공 현지에는 전문직원들과 상밀한 연락 가운데 치밀하고 조심성있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미국 서부 해안으로 부터 중공간의 왕복 여행이며

- 비용 : \$ 2518:00 (숙식 및 모든 관광지 입장료 기차등 일절)
 - 날짜와 기간 : 1981년 6월 24일 출발 7월 14일 도착
 - 관광할 도시 : 홍콩 경유 (칸톤, 난닝, 군밍, 기린, 상하이, 북경)
 - 자격 : 미국 시민과 영주권 소지자에 한함
-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Dr. Paull H. Shim (신 호 범)
Shoreline Community College
16101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33

Phone : (206) 546 - 4753 (낮)
(206) 778 - 1972 (밤)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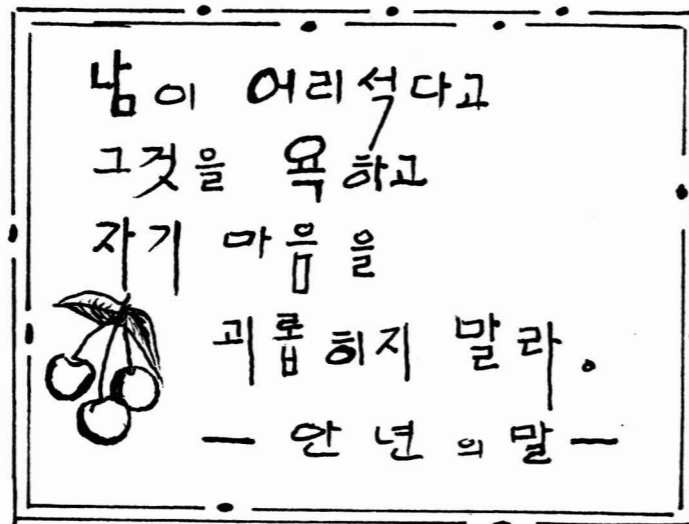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전화번호 : (206) 767-7934

주말을 즐길수 있는 관광지 안내

● **CRYSTAL MOUNTAIN**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며 우리가 살고있는 씨애틀이나 파코마에서 과히 멀지않고 가까워 누구나 즐길수 있는 곳이다. 씨애틀에서 산까지는 약 1시간 40분 정도며 산 중턱에서부터는 cable car 로 산상봉을 오르는 데 내려다 보는 기분은 말할수 없이 좋다. cable car 는 두명씩 타게되어 있어 가까운 친구나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좋은 곳이다. 산상봉 까지 cable car 로 약 25분-30분간 오르면 산상봉에는 식당이 준비되어 있어 편리하다. 내가 간날은 스케이들이 수백명이 모여서 자기들의 기분을 만끽하며 하루를 지냈다.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하얀눈 그리고 벼랑과 같은 눈 계곡에서 나르는 듯한 스키어를 참으로 왜싸이팅하며 그 기분 말할수 없다.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분은 총무 신병근 씨께 전화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화 : 243-2685



생활 Guide

● **"생명보험의 상식"**

에퀴터블 생명보험 최용 세

비저축성 (term) 과 저축성보험 (Cashvalue) life insurance

1. 가장 올바른보험을 얻기위하여는?

현재까지 생명보험이 우리의 생활안전 대책을 강구할수 있는 중요한 것중의 하나임에 비하여 생명보험에 대한 지식을 얻기위해 노력을 한다는것은 전문화된 우리사회에서 결코 쉬운일이 아닌것 같다. 다른 중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한한 우리가 구입하는 보험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갖는것이 매우 필요하며 다음에 열거한 몇가지 고 력사항에 의해 전문보험대리인의 협조 하에 개개인의 경우에 적합한 보험을 결정할수 있을것이다.

- 1) 나의 경우 왜 보험을 구입해야 하며
- 2) 현재와 미래의 필요액 추정
- 3) 얼마만큼의 불입금을 과연 책정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다음에는 당신이 생명보험을 올바르게 선택할수 있도록 돕기위해 몇회에 나누어 기본상식 및 모든본이 궁금해 하는 보험 증서를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

2. 두 종류의 생명보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많은 보험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1) 정해진 일정기간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혜택이 있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시는 불입금이 인상되는 비저축성 단기 (Term policies) 생명보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2) 평생동안 지속되는 혜택과 불입금이 일정하며 저축금이 형성되는 저축성생명보험 (Cash value) 인데 우리교인들의 거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인기있는 Policies 이다.

3. 비저축성 보험 (Te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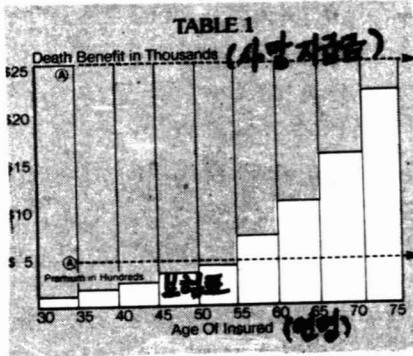
비저축성의생명보험은 가입자의 단기적인 필요에 맞추기위해 설계된 것이므로 임시적인 보호책이라 볼수있다. 즉 예로서 계약용자 및 본물건 구입시 부채상환시까지 의 보호 또는 젊은가장의 경우 비교적은 생명보험액의 필요성은 느끼나 저축성 (Cash value) 생명보험의 많은불입금을 감당치못하는 경우의 단기적인 편법이라 볼수있다.

단기적으로는 작은부담으로 큰혜택을 가질수 있으며 보통 1, 5, 10년 등의 계약에 따라정해진다. 선택한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만료후 재 계약이 자동적으로 가능한경우도 있으나 항시 연령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불입금을 내야만 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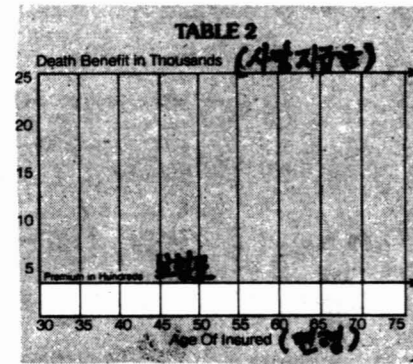
생명보험의 기본인 불입금은 사망률 통계표에 의해 매연령마다 불려지는것 이므로 예로서 30세에Term 을 구입한경우 10년후 40세에 같은액수보험을 재계약시 당연히 한층인상된 불입금을 내야만 하는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평생동안 생명보험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는 비싼불입금을 계약갱신때마다

내야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비싼보험을 드는 셈이다. Table 1 은 30세부터 75세까지의 \$25000 생명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대략적인 불입금을 나타낸것이다.



많은 보험이 비저축성 단기보험에서 저축성장기 보험으로 보험기간 중에는 변경이 가능도 하다.



점선 A는 35세에서 변경시의 새로운 불입금을 나타내며 그 불입금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다.

4. 저축성보험 (Cash value)

많은 Cashvalue Life insurance policies에 차이는 있지만 평생동안 보험혜택이 유지되고 보험시작시의 불입금이 계속유지되기 때문에 permanent life 라고도 한다.

Table 2에서 보듯이 불입금이 30세에서 75세까지 변화가 없는것이다.

즉 처음보험시작 시에는 조금 많은 보험료를 내게되지만 나중에는 점차적게 되는 셈인데 처음에 많이낸 불입금이 이자와함께 증가되는 보장된 Cashvalue (저축된돈) 를 형성케 되는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Cash value는 항상 가입자에게 담보가 되므로 낮은 이자로써 용자를 가

능케하며 계속 저축된 돈은 은퇴후 퇴직보험 용도로도 쓸수있는것이다. 그리고 가입자의 편의와 필요에 의해 돈을 계속법수있는 은퇴전까지 불입금을 완납할수 있는 보험도 있다.

즉 Life paid up at age 65 (65세 불입금 완납 평생보험) 라고 하는데 65세이후는 불입금없이 사망금 혜택을 받을수있는것이다.

5. Term 과 Cashvalue 의 혼합형
앞에서 말했듯이 필요한 보험액수와 가능한 불입금을 고려하여 보험금구입시 양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과기 Term 과 Cash value 의 장점을 취한 혼합형도 가능한것이며, 실제로 많은 주택용 자금보호 (mortgage protection)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사망으로 인해 주택용 자금을 상환치 못하는 경우 생활보험의 사망금 혜택을 용자금을 전액 상환케 하는것으로 낮은 보험료로서 큰 보험필요액을 가능케하는것이다. 이상으로 간단히 생명보험의 종류를 설명하고 다음호에는 생명보험 증서의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겠다.

energy

제공 총무 신 병근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있는 미국에도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살고 있으며 과가정의 온도계는 62'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여기 오즈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나무 스토브 2가지를 소개하며 또한 나무를 돈 안들이고 어떻게 준비할수 있는지를 말하려고 한다.

1) 스토브는 우리가정에 이미설치 되어 있는 FIRE PLACE 에 다가 설치하는 STOVE 를 인서트 스토브라하며 크기와 재료와 성능이 다 다르다. 또 하나는 후리스탠딩 스토브는 FIRE PLACECA 가 아니고 자기가 설치하고 싶은곳에다 설치 할수 있다.

2) 내가 지금 우리집에 설치한 스토브는 CAST IRON 으로 제작된 스토브인데 가격은 \$105.00 이며 상당히 열이많이나고 싼편이다. 이름은 FEDERAL AIR TIGHT 인데 SHOP 주소로 990 INDUSTRY DRIVE SOUTH

CENTER 근방에 있다. 회사명은THE DUTCHWEST INDIA 이다. (575-1376) 전화번호 다음은 나무를 잘려오는 장소와 지도및 전화번호 그리고 주의사항을 말하겠다.

- 1) 짜르기전에 퍼밋을 내야한다.
- 2) 나무를 짜르는것은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다.
- 3) 기둥이좋은 압맞는 톱을 준비해야한다.
- 4) 온반할 차량을 점검하여야 한다. 한사람에게 1CORD 만 짜르게 하는데 1 CORD란 4'높이 4'폭8'의 길이의 나무의 평수를 말한다.

3) 자세한 것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고 전화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말하여준다. 고평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있기를 바라면서

Ranger Districts

Glacier Ranger District
Glacier, WA 98244 599-2714
Darrington Ranger District
Darrington, WA 98241 436-1155

최영세 생명보험



●전미국 3대 보험회사
●최우수 배당금 실적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건강보험,
- 주택보험,
- 상업보험

1. 장기적금과 생명보험과 퇴직금준비를 동시에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저축성 생명보험
2. 값도 싸고 혜택과 서비스가 좋은 자동차보험
○사고, 티켓, 초보운전자, 보험료에 불만있는 분.
○40세 이상 운전기록 좋은분 discount.

집365-0085 사무실624-8380



이퀴러블 생명보험 상호회사
THE EQUITABLE LIFE ASSURANC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치과 전문의
조병규

주소: 215 N. 125TH ST
Seattle, WA 98133

전화: OFF 367-5570
RES 776-8512

Baker River Ranger District
Concrete, WA 98237 826-3118

Monte Cristo Ranger District
Star Route Granite Falls, WA 98252 691-7791

Skykomish Ranger District
Skykomish, WA 98288 677-2414

North Bend Ranger District
42404 S.E. North Bend Way North Bend, WA 98045
888-1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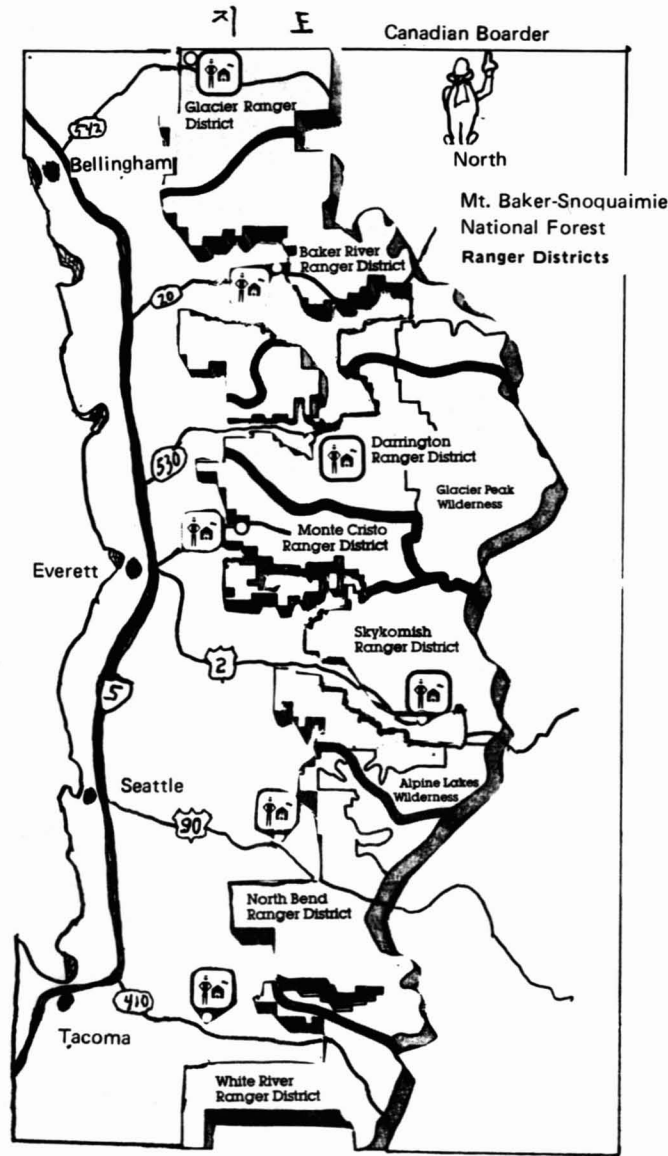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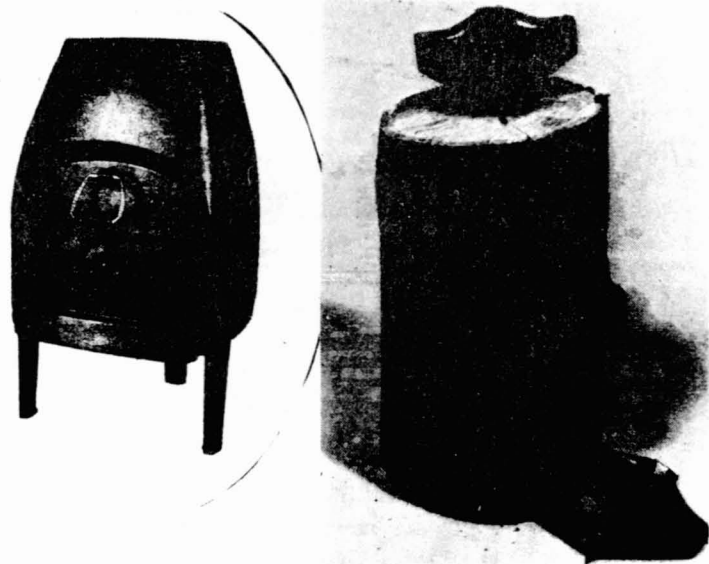
White River Ranger District
857 Roosevelt Avenue East Enumclaw, WA 98022
825-2571

또한

442-0270

Recreation Information Center in Seattle
인데 여기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래의 이 두 그림은 적당하게 잘 이용하세요



우편요금인상

미국내 제 1 종 우편요금이 3월 22일부터
현행 15센트에서 18센트로 인상 되었다.
이번 우편요금인상에서 제 1 종 우편물 기
본요금 18센트에서 1온스 추가 무게당 17센
트가 부과된다.
우편엽서요금은 현재의 10센트에서 12센트

가 된다. 그리고 주로 비즈니스로 사용되는
제 2 종과 제 3 종은 1달러38센트에서 19
달러60센트까지 인상되었다.
그리고 소포요금도 파운드당 3달러2센트의
인상을 실시했다.

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김의 여행사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공인대리점
 ATC (미국항공운수협회) 공인대리점
 PATA (태평양지역 관광협회) 회원

- 가족초청 및 이민상담
- 모국방문
- 각종 서류공증
- 국내항공표

Advance Properties REALTOR
 각종사업투자, 주택매매알선

Kim's Travel Service — Room 619 . 603 Stewart. Lloyd Bldg.
 Seattle, Washington 98101

BUS: (206) 624-2227 / 624-2228
 RES: (206) 364-9934

한인회 주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전화번호 : (206) 767-7934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SERVICE (GAS) STATION

23845 PACIFIC HIGHWAY SOUTH
 KENT, WASHINGTON 98031
 TEL: (206) 878-7500
 (Across the Midway Drive-In)

76
 미드웨이
 야외극장
 스왈밧
 건너편

** 자동차 정비 일체
 * Tune-Up * Brake * Electric * Engine Overhaul
 ** TIRES ** BATTERIES
 ** 도요다 단스 혼다등 외국차 전문

• 2월부터 새로운 Service로 시작한 저희 Station을
 영웅히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성실 및, 풍부한 경험의 기술진으로 책임수리 하고 있습니다.

김 명 환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자동차 정비

LEE'S NORTH CITY ARCO

- 모든 자동차의 일반정비 및.
- 부레이크 정비 특별 서비스.
- Good year tire 판매는 시중 어디 보담도 싸게 판매 합니다.

주소 : 1505 N.E. 175th street.
SEATTLE WA. 98155.
전화 : 364 - 9339.

아파트 방 있습니다

전화 324 - 8652.

- 동양인 분위기.
- 가족 환영.
- 교통 편리 및 중심 지역.
- 주차 편리.

가격 : { 큰방 1개 \$250 (3사람)
 { 큰 스튜디오 \$175 (1사람)
 { \$205 (2사람)

주소 : 114 24th AVE E.
& madison st.

가옥, 상점, 사무실, 수리전문

저렴한비용으로
책임봉사!



- 울타리 및 지붕 개량
- 캐비닛 일절
- 내부 수리
- 구조 변경

윤목수

☎ 363-5492

*목수경력 20년 2개월

자동차 교실

미국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조건의 하나인 자동차에 대한 점진과 이에 따른 일반적인 대책을 중점으로 자동차 교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공 이 점 때 우리가 기계를 전공으로 취급하지 아니했어도 기계는 막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들을 주기적으로 해야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고 오래 오래 쓸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고 나서야 어쩔수 없이 돈이 많이 들어도 공장에 가서 고쳐야 하지만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예방정비를 주기적으로 해준다 면 언제나 안심하고 운전할수 있으며 주인을 언 제어디서나 열심히 모셔다주고 모셔오는 일꾼 역할을 담당하는 고마운 내차가 됩니다.

● 예방정비중의 한목인 엔진오일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왜 기관에 윤활이 필요한가를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 1) 윤활은 모든 움직이는 부분의 마모를 최소로 하고
- 2) 윤활은 모든 움직이는 부분의 마찰을 적게 하며 동력손실을 방지하고
- 3) 윤활은 기관 각 부분의 열을 흡수하여 냉각작용을 하고
- 4) 베어링과 기마 부분과의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여 기관에서 발생하는 구음을 적게하고 또한 기관수명을 연장하며
- 5)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간의 밀폐를 양호하게 하는 등 역할을 담당한다.

● 오일의 선택은 계절에 따라 다르나 대개 SEA 10W - 30W, 10W - 40W, 20W - 50W, 30 등을 사용하게되며 SEA(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변환 미국 자동차 기술협회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점도 (SOCIETY) 에 따라 분류하며 SEA 번호가 낮을수록 점도가 높으며 겨울 에 사용합니다.

● 엔진속의 오일의 질의 색깔을 보고 알수 있으며 새오일의 색과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것은 심하게 오염된 것이고 회색에 가까운 것은 밀폐작용이 잘안되어 캐스가 혼합된 것이고 우유색에 가까운 것은 물이 섞여있다는 증거입니다.

● 엔진오일의 교환시기는 운전조건, 기후, 도로 상향에 따라 다르나 대개 매 3,000 마일마다 주기적으로 교환해주는 게 가장 적합하며 교환시 오일필터도 함께 교환하시면 좋습니다.

● 오일의 양은 많아도 안되며 적어도 안됩니다. 많으면 실린더 벽등의 마멸을 촉진하고 윤활유 소비량을 증대하며 적으면 불완전 윤활이 됩니다. 오일양의 점검은 엔진을 가동하여 오일을 순환시킨다음 2-3분후 표시기(Dipstick)를 빼서 오일 묻은곳을 닦은 다음 다시끼웠다 가 배후 "L"와 "F"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유면 표시기 (DIPSTICK) 은 L(LOW) 표시와 F(FULL) 표시와 ADD 토서 마크되어 있으며 L 은 양이 적다는 표시이고 F 는 충분하다는 뜻이고 ADD 는 반듯이 보충하라는 뜻입니다. 오일교환시는 "F" 표시까지 채우면 좋습니다 양의 점검은 매일하면 좋으나 입주입

에 한번은 체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진을 기동하기전에 키를 틀면 운전대앞대시 보드에 빨간 불들이 3-4개들어오게 되는데 즉 OIL, ENG, GEN, BR. 등인데 엔진을 가동하면 불이 꺼집니다. 이것은 모든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엔진이 가동되었는데도 불이 와있거나 주행중에 갑자기 어느한개의 불이 들어오게 되면 가까운 주유소에가서 안전을 확인한 다음 주행하시는 것이 큰 고장을 예방합니다.

OIL 에 불이 들어오는것은 오일의 양이 부족하거나 순환되지 않는다는 경고이고 ENG 에 불이들어오면 엔진이 과열되었다는 경고이고 GEN 이나 ALT 나 +- 에 불이들어오는것은 배터리 충전장치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이고 BR 에 불이 들어오는것은 부레이크 장치의 결합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라인에 결합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상세한것은 한인정비업소에 문의 하십시오

한인회 주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전화번호 : (206) 767-7934



shoreline graphics

LAKE CITY SHOPPING CENTER
3008 N. E. 127th Street • Seattle, WA 98125
Telephone: 365-6630

Business Hours
Mon.-Fri. 8:30-6:00
Sat. 10:30-3:00

< 영 업 안 내 >

약 도



인 왜

서한용지 투합장
봉명안침 내첩양식
(Carbonless)
기타 인쇄

청 사진

BLACKLINE
BLUELINE
SEPIA
MYLAR
XEROX Copies

문 구 류

각종 사무용품
제도 용품
미של 용품

새로 사무실을 차리시는 분에게는
책상등 사무용비품과 각종기기
및 용품을 Package Deal로
특별 할인 봉사하겠습니다.

정문언 종합 보험



AUTO • LIFE
BOAT • TRUCK • FIRE
HOME OWNERS & COMMERCIAL

GOOD STUDENT DISCOUNT - LOW RATES FOR
CAREFUL DRIVERS - NON SMOKERS SAVE ON
YOUR AUTO, FIRE AND LIFE INSURANCE

(Bus) (206) 523-9111
(Res) (206) 523-8944

Moon Choung Agency
10059 Aurora N.
Seattle, WA 98133



스튜디오꽃집 the flower studio



- 결혼 · 약혼식 꽃
- 실내용화초
- 각종 축하용화분
- 장례식꽃등



— 교포에게 특별봉사 —

★ 전화만주시면 즉시 배달해 드립니다.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 BUS : 325-5032 RES : 367-1534

사 과 말 씀

고민 어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젠 이곳 씨애틀에도 서서히 봄기운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뽀뽀하던 습기의 이
곳 겨울의 계절, 많은 짜증도 나셨겠지만
따스한 봄기운의 향기로 해소를 하시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 긴 나뻨를 펴야 되겠지
요. 아무쪼록 고민과 가정마다 즐거운 하
루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한인회보 신년호가 발행되었
고 발송에 많은 문제점과 차질이 있음에
이에 새로운주소와 과거주소의 재확인 과
정이 너무 짧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좀글 받아보시던 본께서 못
받아보시게 되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임원

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는있읍니다만 고민
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를 하시게되면 새로운 주소와전화번호
1. 정확한 성명 (한글 과 영문)
1. 회보를 받아보실때 정확한 영문으로 기
재되어 있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아직껏 한인회에 주소를 연락하지 못
하신분,
이상 차질이 있을시에는 잊지마시고 한인
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인회보가 바깥없이 고민과 가정
에서 받아보실수 있겠끔 협조를 부탁겠읍니
다. 감사합니다.
임원 임동

" 편집부에서 고민께 드리는 글 "

고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낯 서든 이국 땅에서 그얼마나 고심스럽습니까, 금번 87년도 한인회 임원으로써 편집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문 무용입니다.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 하여주시고 " 미숙한 내가 고민을 위하여 봉사한다 " 고 자위를 할때마다 마음의 무거움이란 나날이 느려나기만 하는 솔직한 한인 회보 편집자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고민여러분을 위한 것인가 하고 말합니다.

고민여러분 ! 한인회보는 고민 여러분의 과자의 것, 자신을 위한 것이며 떠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인의 얼굴입니다.

세수하고 머리에 빗집을 하듯이 우리의 회보가 압찬내용으로 고민 여러분의 이민생활의 지침서가 될수 있도록 모든 임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난 후 여유치 못한 뒷시간을 한인회 아니 고민여러분을 위하여 순수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현 한인회임원 들입니다.

고민 여러분! 이민의 1세는 많은 고생이 따르고 2세들을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인종 차별사회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들의 2세, 3세 의 권익을 위하여 참된 길잡이가 현 고민여러분들 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존재하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듯이 과거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일은 생각치 말고 현재와 미래 그러나 현재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훗날을 위하여 힘 있는 한인사회 단체를 미국 땅 하고도 시애틀-와싱턴주에 심어 놓도록 관심과 협조 그리고 협력 하여 주실것을 바라고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 원고 " 입니다.

고민 여러분의 경험하신 체험담과 생활수기 그리고 미담, 감상문, 기행문, 시 기차 재미 있고 감동적인 글을 보내주시면 채택후 정성껏 실려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과 한인회보에 광고를 의뢰하여 주신분들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 문 무용

한인회 주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전화번호 : (206) 767-7934

인쇄 및 사무용품
shoreline graphics

전화 364-6630

고민 여러분에게 특별봉사를 약속 합니다.

(본지 30면 광고 참조하십시오)

곰바스 클럽

고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명 이래 많은 성원을 이루어 주신 고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곰바스는 고민여러분의 새로운 사교장으로서 격조 높은 분위기와 고차의 흥겨운 음악속에 각종 안주를 준비하고 실비로 여러분을 모시고 잇아오니 많이 왕림해주시기 바랍니다.

격조 높은 분위기!

정동수 클럽.

미희들의 서비스!



감미로운 전자올겐!

고민 여러분의 새로운 사교장 곰바스로..

영업시간
4:00PM - 2:00AM
Entertainment
9:00PM - 2:00AM

※ 주차장은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주소: 8065 Lake City Way N.E.
SEATTLE, WA, 98115.
(phone) 523-7303

★ 각종 파티 연회석 완비.

계리사
이 주 영

전화
623-4181

〈취급업무〉

중소기업 장부정리
일반 인컴 택스
각종 세무 상담
은행 용자 알선

공증 업무 취급
사업 상담
퇴직 연금 상담
기밀 절대 보장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725 S.W. Roxbury Street, Seattle, WA 98106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MAN SOP HAN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